

3도 3군 관광협의회, 축제 공동 홍보

‘한국축제박람회 & 트래블쇼’ 참가해 무주·영동·금산 공동 홍보부스 운영

3도 3군 관광협의회가 ‘2025 한국축제박람회&트래블쇼(주최 (주)동인전람)’에 참가해 각 지역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 홍보에 나섰다. 15일 개막한 이번 박람회는 1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3도 3군 관광협의회 부스에는 무주 반딧불축제(2025. 9. 6.~14.), 영동세계국악엑스포(2025. 9. 12.~10. 11.), 금산세계인삼축제(2025. 9. 19.~28.) 등을 알리는 축제 홍보관을 비롯해 포토공간이 마련됐다.

부스에서는 영상 콘텐츠 상영, 포토부스(즉석사진)체험 이벤트, SNS 인증샷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이현우 무주군청 관광진흥과장은 “참가자가 150여 곳, 운영 부스 300개 규모에 국내외 지자체와 관광 기관, 여행업계 관계자, 일반 관람객 등이 대거 방문하는 대규모 축제·여행 산업 박람회”라며 “3도 3군 관광협의회에 있어 이번 행사는 공동의 목표 실



3도 3군 관광협의회가 ‘2025 한국축제박람회&트래블쇼(주최 (주)동인전람)’에 참가해 각 지역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 홍보에 나섰다. 15일 개막한 이번 박람회는 1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현을 위해 지속해 온 상호 관광 교류와 공동 마케팅의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역축제 공동 홍보 전략을 수립·추진에도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3도 3군 관광협의회는 무주

군(전북), 영동군(충북), 금산군(충남)이 지역 경계를 넘어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구성한 협의체로, 매년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

최훈식 장수군수

최훈식 장수군수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의 소중한 권리 행사 독려를 위해 투표 독려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최 군수는 지난 14일 캠페인 첫 주자로 나서 “국민의 한 표, 품격있는 선택의 시작입니다”라는 메시지 피켓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투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

의 미래를 만든다.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 군수의 제안으로 시작되는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릴레이 캠페인으로, 각 기관·사회단체장이 투표 참여 메시지와 함께 다음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 군수는 다음 주자로 최한주 장수군의회의장, 김성수 NH농협은행 장수군지부장을 지목했다.

장수군은 군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 SNS 마을 안내 방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투표정보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군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15일 군은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단체장 캠페인 추진, △현수막 게시, △대형 LED 전광판 홍보, △홈페이지·소셜미디어 홍보, △음·면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전춘성 진안군수가 군청 광장, 공공버스터미널, 진안농



협 추진지점 청사 준공식 등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군은 유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과 아

파트 단지 인근 계사대와 군청사, 11개 읍면 청사 주변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로터리 대형 전광판을 통해 투표 정보를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온라인 홍보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진안군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채널을 통해 선거 일정, 투표소 위치 등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다”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15일 ‘소통’을 주제로 (사)귀농·귀촌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귀농·귀촌 삶의 질 높인다

무주군, ‘삶의 질 중심 정착 지원’ 정책 방향 전환

무주군이 귀농귀촌 정책 방향을 ‘수치 중심의 인구 유치’에서 ‘삶의 질 중심의 정착 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히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귀농·귀촌 전용 상담 전화(1551-6858) 개설, △서포터즈 제도 확대 운영, △귀농·귀촌 기초 자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이법 개정 건의 등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소통을 강화해 지역사회 융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귀농·귀촌인 전수조사를 통해 정책을 발굴·보완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제는 사람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평생 정착에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15일 ‘소통’을 주제로 (사)귀농·귀촌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귀농·귀촌 성과를 되짚고 정착자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

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천순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천순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장은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협의회가 실질적인 멘토가 되어 신규 정착인이 지역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험을 통해 보면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착 이후의 삶을 함께 나눌 공동체 기반이 중요하더라”며 “그런 부분에서 협의회가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무주군에 들어와 정착한 귀농·귀촌인은 546가구 948명으로, 무주군은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용자 지원 등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했다.

또한 “전북에서 살아보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등 지역에 거주하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서초구 전북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2025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교육 및 상담’의 일환으로 귀농·귀촌 설명회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정기 점검

무주군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 181곳에 대한 정기 점검을 나선다. 이번 점검은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안전성 확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무주군은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충족 여부, △소독·방역 시설 구비 등 농가별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여부,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축산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운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 민원이 증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 위험도 계속되고 있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가축사육업의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특별시 무주에 걸맞은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점검에 앞서 대상 농가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점검 시에는 축산정책에 반영할 가축 사육 농가의 현장 의견도 청취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책과장은 “최근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 민원이 증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 위험도 계속되고 있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가축사육업의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특별시 무주에 걸맞은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점검에 앞서 대상 농가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점검 시에는 축산정책에 반영할 가축 사육 농가의 현장 의견도 청취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진안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에 발 빠르게 동참하며 인구 정책에 대한 군정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군은 1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정성주 김제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를 지목했다.

전 군수는 “인구문제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진안군은 청년 정책, 주거 지원, 고령친화사업, 육아환경 개선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체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지난 14일, 인구문제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은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표어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으며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다짐했다.

한편 최한주 의장은 릴레이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장수교육지원청 추영곤 교육장을 지목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